

사흘 전 긴급 안전진단 받았지만 ‘무용지물’

EGR 외 추가결함 우려가 현실로 외부 수리 이력 땀 보상 불가 고수 BMW ‘강경 입장’에 차주들 분통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 추진”

“언제는 국내 외부 수리업체에 기술 전수한다고 자랑하더니...”

잇따른 차량 화재로 최대 위기를 맞은 BMW코리아의 오락가락 행보에 차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BMW코리아의 차량화재 수습책이 나온 이후 대책 사각지대로 소비자들이 우려했던 사실 정비업체 수리 이력의 BMW 520d 화재가 7월 19일 실제로 발생한 것. 해당 차주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BMW 측으로부터 외부정비업체 수리 이력이 있어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구입 후에는 정식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MW코리아는 2016년 4월 수입자 최초로 외부 수리업체에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 세미나등을 개최하며 “국내 자동차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대책에서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소비자만 보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BMW는 20일부터 실시하는 본격적인 리콜에 앞서 7월27일부터 사고 예방 차원에서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4일 오후 2시15분 전남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주행 중 불이 난 BMW 520d 차량(왼쪽)과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화재사고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긴급 안전진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안전진단 확인서까지 받은 BMW 520d차량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해 차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시행하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부품 내부를 내시경 장비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침전물 클리닝 등의 정비작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EGR 모듈이 화재 원인으로 거론됐을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결함 등 추가적인 문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전진단 받은 차량서도 화재

그리고 마치 이런 우려를 입증이라도 하듯, 실제로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오후 전남 목포시 옥암동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53살 김모씨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올해 들어 32번째이고 520d

모델로는 19대째다.

문제는 해당 520d 차량이 화재가 나기 3일 전인 1일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점. 당시 김씨는 차량 점검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안전진단 확인서까지 발급받았다. BMW 코리아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만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급 신차로 교환해준다면 소비자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결국 가장 우려했던 안전점검 후 화재가 벌어지면서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BMW 차량 화재가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국토교통부는 급기야 5일 BMW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일체의 의혹없이 발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국토부 산하 연구원 뿐만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참가시켜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자동차 검사소를 활용한 안전진단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부실 안전진단을 막고 안전진단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BMW는 4일 자정 화재와 관련한 기술 자료를 모두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영업기밀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민간 전문가와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너무 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ereno@donga.com

경제

17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자동차보험 10월 3~4% 인상 전망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최소 3~4% 오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 시기는 10월께로 예상된다. 정비요금 상승과 손해율 악화, 최저임금 인상, 병원비 지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며 금융당국도 이 같은 인상이요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약 2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 정비요금이다. 이로 인해 연간 보험금 지급이 약 3000억원 늘어나고, 2.9% 가량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청구되는 병원비가 연간 550억원 가량 늘는 것도 주요 인상 요인이다. 대형 손보사들은 우선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요율 감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그린 라이트’ 두 번째 결실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빈곤지역에 건립한 자립형 모델의 지역사회 이익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기아차가 2013년 모잠비크 자발라와 말라위 릴롱게 지역에 세운 중등학교로, 지난해 탄자니아 중학교와 말라위 보건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양됐다. 기아차의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소외계층에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빈곤지역의 기본적인 교육 및 경제가 살아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리오



QM3

르노삼성 클리오·QM3, HUD 등 신규 편의사양 출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존 고객도 별도로 구매 가능

르노삼성자동차는 QM3와 르노 클리오 전용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및 ADAS(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SM6 파워트렁크 등 안전 및 편의사양, 신규 선택사양 등을 출시했다. 신차 출시 때 선택할 수 있고, 기존 고객도 별도로 구매 가능하다.

QM3와 르노 클리오 전용 HUD는 운전

자 대시보드 상단에 거치해 안전과 편의를 높여주는 장치다. 운전자 주행시 전방에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도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 속도, 내비게이션 안내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Tablet to Car)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마트 커넥트 II’가 장착된 모델에 탑재할 수 있다. 첨단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인 ADAS도 선택할 수 있다. A

DAS는 차선이탈 경보, 전방추돌 경보, 차간거리 경보 앞차 출발 알림 등의 기능을 통해 안전 운전을 돕는다.

SM6 전용 파워트렁크도 선보였다. 차량에 위치한 버튼이나 스마트키를 통해 쉽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다. SM6의 모든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NEW IH-디지털아궁이

24개월 무이자 할부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 쇄도

●●●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기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족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있다. 기존 가스 돌솥밥 기계보다 공간 차지가 덜하고 유해가스와 열기가 없어 주방, 홀을 비롯한 어디서든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설치가 손쉽게 가능하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갓 지은 듯한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계손님, 예약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족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8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디지털 아궁이를 구매한 대천휴게소 상하행선 관계자는 “이전에는 많은 구수의 제품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적은 구수로도 손님이 한꺼번에 많이 와도 바로 처음 한 밥맛으로 나갈 수 있어 많은 양의 밥을 하기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이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한해 18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 저리 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문의 1544-7871